

Symposium I : 유방암 검진

좌장: 정수영, 김학희

13:40-14:00

유방암 검진사업: 현안 토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차 은 숙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은 서구에 비해서는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여 2002년부터 우리나라 여성 암 중 발생 제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국가에서도 유방암을 포함한 5대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우리나라 국민의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999년 의료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06년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를 대상으로, 2015년에는 전국민 암 검진 수혜율 80%, 국가 암조기검진 수혜율을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에 있어서는 이동검진을 이용하여 지역암센터, 지방의료원을 이용한 이동검진반의 설치를 발표하였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유방

검진검사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유방임상진단과 유방촬영술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방촬영술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규정한 검진 환자 대상 및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무증상여성에서의 정규 유방검진과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의 진단적 유방검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유방검진을 시행하는 최초 연령이나 검사 간격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 부족으로 진단에 많은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도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유방촬영기를 사용함으로써 과다한 방사선 피폭과 낮은 질의 영상사진을 만들게 되고, 판독 전문의에 의하지 않은 판독으로 미세유방암에 대한 오진과 함께 유방암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밀유방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초음파검사가 남발되고 있

○ 암 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 방 암	30세 이상 여성	매월	유방자가검진
	35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임상진찰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 유방임상진찰

(국립암센터, 한국유방암학회)

[암종별 검진항목, 실시 대상자]

구 분	검진항목	실시 대상자
공통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유방암	1. 유방단순촬영(양측)	- 만 40세 이상의 여성
	2. 조직검사 - 미세침생검 - 병리조직검사	- 유방단순촬영 결과, 병형이 유방암의심, 유방암, 추가검사 요함으로 보고된 경우 실시

습니다. 이에 유방 초음파도 정도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초음파 기계로 적절한 적응증 없이 비전문의에 의해 남발되어 오진 및 과잉 진료의 문제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방검진에 있어서 유방촬영술에 의한 검사 후 유방영상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판독이 가장 중요하며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안 및 문제점

1. 홍보 및 교육
2.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 판독
3. 판독 후 사후 관리
4. 정도관리
5. 유방초음파검사
6. 기타 다른 학회의 인정의 제도?